

“미르재단, 정부기관 제치고 케이밀사업 어떻게 맡았나”

국감초점-농어촌공사·aT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나주 빗가람동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또 쌀값 폭락에 따른 가공용 쇠미(碎米·싸라기) 수입·판매와 부실한 저수지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미르재단 논란 계속=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의 하나인 ‘케이밀(K-Meal) 사업과 관련,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의 팀장이 케이밀 사업체 임찰공고 이후 임찰선정 평가위원회에 포함됐다”며 “많은 많은 정부기관을 놔두고 왜 민간재단이 주관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위성근 의원은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케이밀은 미르재단이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계호 의원은 “미르는 한류를 홍보하려고 만든 단체인데 왜 농식품 홍보사업에 미르가 관여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김한정 의원도 “미르재단은 거의 비선재단, 문고리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T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현지 미팅 이후 미르 재단을 전문가로 판단해서 선정했다”며 “아프리카는 특수지역으로서 우리에게 전문성이 없어 이를 따져 결정했으며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싸라기 수입·판매 도마 위=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쌀쌀용 쌀 수입에 이어 가공·주정용 싸라기까지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는 지난해 10월 ‘쇠미 국내의 생산·유통 및 소비동향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aT 쌀쌀용 이어 싸라기 쌀 수입·유통 앞장” 질타 지진·홍수 대처 저수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촉구

aT는 용역보고서에서 쇠미 활용 방안과 국내 수요분석 자료를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가공용 쇠미의 국내 수요를 최대 10만2000t 수준으로 파악했으며, 대부분 수출을 빚기 위한 주정용 사용을 예상했다.

또 가공용 수입산 쇠미의 경우 국내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수요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입산 쇠미 국내 유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내 주요 쌀 가공 및 주류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용물량을 묻고 실수요 조사결과를 내놓는 등 aT가 사실상 수입대행사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며 “국내 목은 쌀 활용방안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aT가 수입쌀 유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홍수량 대처 부실한 저수지 관리=국회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시스템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내년 특등급(저수용량 2000만톤)과 내년 1등급(500만톤)의 저수지에 대당 3억여원의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진 발생시 시설담당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진 발생 시 노후화된 저수지가 붕괴되면, 1분 1초가 시급하다. 값비싼 예산을 들여 구입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위험상황을 문자나 경보로 알리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의원은 부실한 저수지 관리를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리 저수지 3379개 중 1527개가 홍수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 의원은 “정부와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저수지의 홍수 대책은 물론 오염방지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 주민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곰탕 점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나주시 빗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사육 구내식당에서 나주곰탕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감현장

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계속됐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은 계속됐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장이 국방위 국감을 개시했으며 여당이 상임위원장이 일부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우 위원장 나홀로 복귀...與 위원장 상임위 첫 개의

◇국방위=이날 국방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김영우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감을 개시하기로 하면서 국방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감이 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고 저는 그 말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위마저 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국감 참여를 선언하며 국방위를 열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사실상 위원장직에 감금당해 뜻을 이루지 못

했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감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민주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김영우 위원장에 고맙단 인사를 드린다”며 “새누리당 국방위원들께서도 국방의 엄중한 현실을 생각해 조속히 국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받았다. 또 합참으로부터 이날 북한군 병사 귀순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26일과 27일에도 국감 참여를 선언하며 국방위를 열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사실상 위원장직에 감금당해 뜻을 이루지 못

野 사회권 이양 단독 진행...30분만에 중지 선언

◇법사위=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개회’됐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1시간 가량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린 후 오전 11시쯤 위원장직에 앉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개의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및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자동퇴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특별감찰관실 국감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조윤천 의원은 “특별감찰관 모두를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보에게 내일(30일) 있을 법사위 회의는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1시간 가량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린 후 오전 11시쯤 위원장직에 앉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보에게 내일(30일) 있을 법사위 회의는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1시간 가량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린 후 오전 11시쯤 위원장직에 앉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개의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및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자동퇴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특별감찰관실 국감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30분간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박범계 간사는 ‘감사 중지’를 선언.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형사고발

현재에 심의·표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정의장 출국 미루고 타개책 ‘암중 모색’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국회를 비운 채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암중모색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원래 이날 오후 미타(MIKTA·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의 참석을 앞두고 뉴질랜드 의회와의 양자외교 차원에서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뉴질랜드 행은 일단 취소하고 국

회 밖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는 파행 정국 해법을 숙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해법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고발 등 강경 공세에도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도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

들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에서 “정 의장이 뉴욕 출장에서 개인 일정 일탈에 대한 제보를 지금 받고, 국회의 돈을 가지고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 측에서는 이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와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이 주고 받는 식으로 이뤄져야 파행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달라진 식사 풍경...구내식당서 1만원짜리 곰탕 점심

◇농해수위=이날 국감장에서는 김 영란법(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으로 달라진 점심 풍경이 연출됐다.

29일 나주시 빗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사육 2층 구내식당으로 이동해 곰탕을 함께 먹었다. 의원과 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42명이 먹은 식비 42만원은 농수위 국감운영비로 치렀다.

농해수위는 1만5000원짜리 메뉴도

파는 이 식당에 1만원짜리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TX를 타고 내려온 의원들 교통비도 상임위 행정실에서 계산했다.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피감기관 직원은 의원들과 다른 곳에서 별도로 식사를 했다. 피감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점심을 제공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음료와 과일 등 다과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500ml들이 생수만을 제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o.com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광진구 광천사거리 11번길 11 (태영21병원)

운임동, 광천사거리, 광주진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